

# Apple TV의 긍정적 전망에 대한 반론 제기

■ 신호철\* · 정승원\*\*

## 1. 개요

2010년 9월 1일, 새로운 버전의 Apple TV가 출시되었다. 새로운 Apple TV는 구 버전보다 크기와 무게를 줄였고 다운로드 & 플레이가 가능했던 하드디스크를 제거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제공한다. 가격도 3년 전 구 버전 모델의 가격인 299달러에서 99달러로 대폭 낮췄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대여(rental) 개념을 도입한 서비스 방식이다. 새로운 Apple TV는 인터넷에 자체 접속한 뒤 iTunes를 통해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대여하여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Google TV와 달리 셋톱박스 형태로 출시한 점도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셋톱박스 형태로 출시된 Apple TV가 거실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일부 전문가 및 언론에서는 이번 Apple TV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Apple TV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히 스마트TV 시장을 선점할 만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Apple TV의 특성과 전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스마트 TV 시장에서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연구원, (02)570-4054, animeshin@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 (02)570-4083, promi@kisdi.re.kr

## 2. Apple TV의 특성과 서비스 전략

새로운 Apple TV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살펴보기 전에 새로운 Apple TV가 가진 특성과 서비스 전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새로운 Apple TV는 기존의 애플 TV와 비교하였을 때 크기는 작아지고 가격은 저렴해졌다. 9월 1일 신제품 발표회에서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은 TV가 또 하나의 컴퓨터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Apple TV를 소개하였다.

<표 1> 기존의 Apple TV와 새로운 Apple TV의 사양 비교

	기존 애플 TV	새로운 애플 TV
이미지		
중량	1.09kg	0.27kg
크기	197×197×28mm	98×98×23mm
프로세서	Intel Pentium M 1.0GHz “Crofton”	Apple A4 칩
하드디스크	160GB	플래시 메모리로 대체(32GB)
네트워크	10/100BASE-T 이더넷 WiFi(802.11 b/g/n)	10/100BASE-T 이더넷 WiFi(802.11 b/g/n)
재생방식	다운로드 & 플레이	스트리밍
가격	\$299	\$99
기타	AirTunes <sup>1)</sup> 탑재	AirPlay <sup>2)</sup> (iOS 4.2부터) 지원

자료: Apple 홈페이지 참조

- 1) iPhone 등에 저장된 음악을 무선으로 전송해 외부 시스템의 스피커로 출력하는 기능으로 애플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PC와 프린터를 무선 연결하는 등의 용도로도 이용 가능.
- 2) Airtunes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기능이지만 음악뿐만 아니라 동영상, 메타 데이터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콘텐츠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음. 이는 새 셋톱박스를 매개 삼아 PC, 포터블기기, TV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3-Screen 선언과 다르지 않음(STRABASE, 2010)

기존 Apple TV와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Apple TV의 가장 큰 특징은 하드디스크가 없다는 것이다. 160G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빼고 크기를 줄였으며, 대신 플래시 메모리가 버퍼링 역할만을 담당한다. 기존의 Apple TV Box에 들어갔던 Intel Pentium M class 프로세서, 그래픽, 메모리 등을 A4 칩 하나로 대체할 수 있어 60~65달러가 들던 예산을 15~20달러로 낮출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40GB Apple TV가 229달러였던 반면, 새 Apple TV는 99달러로 책정되었다. 또한 전구보다 적은 전력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팬리스(fanless) 방식이라 소음이 없다. 실제 크기도 98×98×23mm, 무게 0.27kg으로 기존 모델보다 1/4로 줄어들어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 작아졌다.

둘째, 소비자 이용면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시켜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 Apple TV의 경우 콘텐츠 가격과 기기 이용의 복잡성, 저장 공간 관리의 어려움, iTunes 동기화의 번거로움 있었다. 새로운 Apple TV는 재생 방식을 다운로드 & 플레이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iTunes 동기화 역시 불필요해졌다. 리모콘도 상하좌우 버튼에 메뉴, 재생 버튼만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단지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해 플레이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UI 역시 5가지 메인 메뉴(Movies, TV Shows, Internet, Computer, Settings)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iTunes에서 제공하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으며, Internet 메뉴에서는 Netflix,<sup>3)</sup> Youtube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도 있고, MobileMe,<sup>4)</sup> Flickr<sup>5)</sup>에 올려둔 사진을 TV를 통해 큰 화면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장소(storage)가 없어 녹화가 불가능하며,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모아둘 수도 없다. 인터넷 브라우징 기능도 없어서 다른 스마트TV처럼 웹서핑을 할 수 없으며, 앱스토어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수 없다. 화질 구현에 있어서도 A4 프로세서는 해상도 720p로 아직 풀 HD급 비디오를 구현할 수 없어 삼성TV와 소니

3) 주요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Startz, EPIX, Relativity Media 등 유료 CP들의 신작, 오리지널 시리즈 등을 월 \$8.99에 제공

4) 애플이 제공하는 퍼스널 클라우드 서비스

5) 태그기반 인터넷 앨범 서비스 제공

가 만드는 Google TV 등 경쟁 제품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1080p 고화질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을 만큼 빠른 인터넷 회선을 구축한 가정은 아직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Apple TV는 Google TV처럼 TV 용도의 확장과는 거리가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의 편의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능과 기존 자사기기간 생태계 구축에 주력<sup>6)</sup>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새로운 Apple TV UI



자료: Apple 홈페이지

셋째, 구매 대신 대여(rental)개념을 도입하였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구입해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단말의 저장소 용량에 과부하가 걸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방식의 대여 시스템은 용량이 큰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데 있어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여 시스템의 의의는 시청자의 콘텐츠 소비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콘텐츠 라이선스(license)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청자들은 콘텐츠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공유, 불법 다운로드를 막을 수 있다. Apple 역시 CP로부터 콘텐츠 각각의 개별 판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iTunes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CP들에게 새로

6) Digieco(2010. 9. 3)

은 판매 창구를 제공<sup>7)</sup>하는 것이다. 이는 콘텐츠 유통 수익이 아니라 자사 영토 확장에 따른 TV 광고 시장을 넘보는 Google TV<sup>8)</sup>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며 새로운 Apple TV는 ABC, ABC Family, Fox, Disney Channel, BBC America 등의 지상파 채널과 제휴를 맺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여형 서비스에 근시일 내에 호응할 수 있는 사업자는 지상파 네트워크로 한정된다. 지상파 네트워크는 어차피 케이블 진영에 대한 매출 의존이 심하지 않은 데다 iTunes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ESPN이나 HBO와 같은 유료 채널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케이블 진영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방향인 Apple TV로 선불리 움직이기 힘들다는 판단<sup>9)</sup>이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 프로그램은 굳이 iTunes가 아니라도 볼 수 있는 경로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Apple TV는 미국 케이블 진영의 인기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iOS 4.2부터 추가될 AirPlay 기능을 통한 3-Screen의 구현이다. 현재 Apple은 스마트폰(iPhone), 음악 및 동영상 플레이어(iPod), 태블릿 단말(iPad) 그리고 PC(Mac)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거실용 단말이 추가된다면 AirPlay 기능을 통한 여러 스크린에서의 콘텐츠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에서 영화를 보다가 AirPlay 아이콘을 누르고 Apple TV를 선택하면 보던 영상을 그대로 Apple TV를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사용자 단말의 로컬 콘텐츠를 Apple TV의 Computer 카테고리에서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발표에 따르면 Apple 기기뿐만 아니라 third-party 오디오 제조업체의 하드웨어에서도 AirPlay 기능이 가능하다. 현재 Denon, Marantz, JBL, Bowers &

7) 스티브 잡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팔려나간 iOS 단말은 총 1억 2,000만 대에 달하고 지금도 하루 평균 23만 대씩 그 숫자가 늘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낸 네트워크 효과는 가히 폭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8)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ABC, CBS, FOX 등 미국의 핵심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들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제휴를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구글 TV가 특정 이익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거나 대단히 위협적 존재로 자신들의 영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판단된다.

9) STRABASE(2010. 9. 6)

Wilkins, iHome 등이 “featured partner”로 등록되어 iTunes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스피커로 감상할 수 있다. Apple의 AirPlay 개발 업체인 BridgeCO의 CEO인 Gene Sheriden는 “AirPlay 라이선스를 얻은 제조사가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홈 스트리밍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AirPlay 기능을 탑재한 단말 시장이 약 1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ABI Research는 네트워크 오디오 단말 시장의 수익이 2009년 13억 달러에서 2015년 10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sup>10)</sup>

### 3. Apple TV의 특성과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

2010년 10월부터 시판될 예정인 Apple TV에 대해 각종 언론에서 찬사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Apple의 전략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교체 주기가 5~10년인 TV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TV를 활용하는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이러한 Apple TV의 특징으로 내세우는 장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측도 만만치 않다.

Wired의 Eliot Van Buskirk는 Apple TV의 단점을 크게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재 TV show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방송사는 ABC와 FOX뿐이라며 다양한 방송사의 TV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한 빈약한 콘텐츠를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CBS와 NBC는 Apple TV에 TV show 프로그램 제공을 거절하였고 FOX도 실험적인 측면에서 제휴하였다.<sup>12)</sup> 둘째, 예상과 달리 Apple TV는 iOS를 장착하지 않아 Apple 앱스토어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Apple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려면 Flickr, MobileMe, Netflix, Youtube 등을 통해야 하는데 왜 충분히 활성화된 iOS를 장착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셋째, HD 방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단점

10) Jonny Evans(2010. 9. 9)

11) 디지털타임스(2010. 9. 8)

12) Miguel Helft(2010. 9. 5)

으로 떠오르고 있다. 넷째, TV가 대형화되면서 소비자들도 HD기기와 고화질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Apple TV는 1,080p가 아닌 720p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섯째, Apple TV의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Apple TV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그리고 P2P 서비스로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모두 가능한 BitTorrent<sup>13)</sup>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14)</sup>

한편 IMS Research의 Paul Erickson은 Apple TV가 화려하게 등장하였으나 시장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새로운 버전의 Apple TV는 99달러의 가격에 크기가 이전 버전보다 작아졌고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며 iTunes를 통해 Youtube, Netflix, Flickr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Blu-ray Disk player와 게임 콘솔, 커넥티드TV 등 경쟁자들이 이미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게임 콘솔과 Blu-ray Disk player라고 보았다. Erickson은 Apple TV가 시장에서 다양한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예를 들었다. 첫째, 자국의 유료방송 보급률이 높고 주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HD VOD와 DV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Netflix가 PS3, Xbox 360, Wii를 지원하고 있고, Hulu는 PS3와 Xbox 360을, Blu-ray Disk player와 커넥티드TV는 이미 Netflix, Hulu, Vudu, Youtube, Pandora, Slacker, Picasa, Flickr 등의 온라인 미디어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Blu-ray Disk player와 PS3, Xbox 360, 커넥티드TV에서 프로그램 재생을 할 수 있고 DivX, AVI, DLNA 호환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결국 Apple TV는 경쟁적인 온라인 비디오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다른 기기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차별화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았다.<sup>15)</sup>

13) BitTorrent는 P2P(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의 이름이자 그것을 이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이름이다. BitTorrent를 이용하면 파일을 인터넷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

14) Eliot Van Buskirk(2010. 9. 1)

15) tvover.net(2010. 9. 3)

New York Times의 Miguel Helft도 Erickson과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그는 게임기, Blu-ray player, 인터넷 커넥티드TV 등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기기에서 Netflix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Apple은 Roku, Boxee 등 신규 경쟁자의 증가, 강력한 라이벌인 Google 그리고 TV 제조사인 Sony와 삼성 등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sup>16)</sup>

과거 Apple의 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Steve Perlman은 Apple TV의 특징을 “감동을 주지 못하는(underwhelming)”이라고 규정지으면서 Apple은 아직 TV에 관해서는 정체되어 있으며 제한된 프로그램 선택권과 iPhone으로 활성화시킨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고전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또 Apple이 시청자에게 획기적인 특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7)</sup>

이렇듯 Apple TV의 시장 안착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비판적 견해가 서비스 측면과 경쟁 상황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Apple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여겨진다. 특히 경쟁 상황 측면에서 Apple은 TV 시장 진입에 몰두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경쟁 상대는 온라인 동영상을 제공하는 시장(Over the Top TV 시장)이라는 점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결 어

성균관대 정태명 교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TV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실시간 방송이나 VOD 서비스 정도로는 안되며 더 쉽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은 물론, 기존의 TV와 PC, 휴대폰이 독립적으로는 서비스하지 못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8)</sup>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도

16) Miguel Helft(2010. 9. 5)

17) 상동

18) 정태명(2010. 9. 3)



한 몫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Apple TV에 대한 비판론자들도 대부분 빈약한 콘텐츠와 차별화되지 못한 서비스를 문제삼고 있다.

Apple의 iPod가 2001년에 처음 출시되었을 때 시장에 출시된 다른 제품보다 콘텐츠 측면에서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킨토시 컴퓨터에서만 구동되는 결정적 결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iTunes가 개발되면서 iPod는 디지털 음악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iTunes는 서비스 차별화와 시장의 경쟁 상황을 이해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pple TV에서도 iTunes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내에서도 2010년 9월 7일, 스마트TV 시장 선점을 위해 스마트TV 포럼을 발족하였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가전사뿐만 아니라 KBS, EBS, KT 등 방송사와 통신사도 참여하였다. 아직 Apple과 Google이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포럼의 발족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아마도 가전사는 TV 시장 점유율 유지에, 방송사는 광고시장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TV 시장과 광고시장의 점유율 유지에만 급급하다 보면 스마트TV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TV 시장, 광고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까지 고려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향후 논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판론자들이 제기한 우려와 부정적 견해들을 감안하여 스마트TV 시장에서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Apple TV에도 해당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Apple TV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디지털타임스》, (2010. 9. 8), “윤곽드러낸 스마트TV 전쟁...약이나 독이나”.

정태명 (2010. 9. 3), “삼성·LG, 을(乙) 돼야 스마트TV 전쟁 이긴다”, 《Chosun Biz.com》.

- Eliot Van Buskirk (2010. 9. 1). “5 Reasons why Apple TV is(still) boring”, 《Wired.com》.
- Jonny Evans (2010. 9. 9). “Interview: Apple’s AirPlay is a big, big business”, 《Computerworld》.
- Miguel Helft (2010. 9. 5). “Apple faces many rivals for streaming to TVs”, 《The New York Times》.
- Sean Portnoy (2010. 9. 1). “Apple’s new AirPlay feature to be supported by third-party speakers, AV receivers”, 《ZDNet》.
- STRABASE (2010), “TV 스크린을 겨냥한 新 Apple TV 등장”, 《Issue Alert》, 2010. 9. 6.
- 《tvoer.net》, (2010. 9. 3), “Will people finally want Apple TV? The newest version faces the toughest market yet”.
- Apple 홈페이지, <http://www.apple.com/appletv/>